

## 7 총회역사위원회 보고

제102회기 총회역사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위원장 김정훈  
서 기 박창식

### 1. 조 직

- 위 원 장 : 김정훈
- 부위원장 : 함성익
- 서 기 : 박창식
- 회 계 : 오광춘
- 총 무 : 석찬영
- 위 원 : 정상목 김병희 김보석 신종철 김상원 박정권 황대근 최기목 최효식 배영국 손원재  
윤중근 송정현
- 고 문 : 장차남 정성구
- 전문위원 : 김남식 심창섭 박용규 김효시 장영학 박세형

### 2. 회 의

#### 1) 전체회의

#####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17. 12. 18(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제102회기 총회역사위원회 위원장에 김정훈 목사를 선출하다.
- ② 기타 임원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위원장이 아래와 같이 기타임원을 선임하다.
  - 부위원장: 함성익 목사                      - 서 기: 박창식 목사
  - 회 계: 오광춘 장로                          - 총 무: 석찬영 목사
- ③ 분과별로 아래와 같이 조직하여 받기로 하다.

구 분	사료분과	사적지지정분과	연구분과
분과위원장	김병희	최효식	신종철
서기	황대근	김상원	정상목
회계	배영국	손원재	윤중근
총무	최기목	송정현	박정권
위원	박창식, 김보석	함성익, 석찬영	김정훈, 오광춘

- ④ 총회역사관 관장 및 고문, 전문위원 위촉은 본 위원회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또한, 총회를 방문하는 총대 및 방문객들이 역사관의 문이 닫혀 있다고 역사위원들에게 항의하는 바 상시 관람을 위해 총회임원회에 직원 배치를 청원하기로 하다
- ⑤ 제102회기 총회역사위원회 사업계획안을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 ⑥ 1월 부산 초량교회 사적지지정감사예배 순서와 기타업무는 위원회 임원과 사적지지정분과 임



원회에 위임하기로 하다.

- ⑦ 제102회기 총회역사위원회 예산안을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 ⑧ 제102회 총회결의사항에 대하여 초량교회 및 일제강점기 주기철 목사 수난지- 의성경찰서 옛 건물에 대한 사적지 지정청원, 만경교회의 순교사적지 지정청원 건은 102회 총회에서 허락받았기에 해 교회 및 사적지에 대한 지정감사예배를 진행키로 하고, 송천교회의 사적지 지정청원은 현장답사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다.
- ⑨ 재정부에서 이첩된 “만경교회 순교역사 기념관 건립지원 청원서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요청하기로 하다.

## 2) 소위원회 및 분과회의

### (1) 제1차 회의 (임원 및 분과장 회의)

☞ 일 시 : 2017. 11. 23(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① 제102회기 사업계획(일정)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하다.

월	주요 추진사업
12	- 전체회의 / 102회기 사업계획 보고
1	- 부산 초량교회 사적지 지정감사예배(1/24예정) - 전국교회 사료기증 협조공문 발송(1월중)
2	- 김제 만경교회 순교사적지 지정감사예배 및 사적지발굴 지역현장답사 (전주서문교회, 군산구암교회)
3	- 의성경찰서 및 의성중리교회 사적지 지정감사예배 - 사적지발굴 지역현장답사 (영덕 송천교회)
4	- 사적지발굴 지역현장답사 (광주양림교회, 범성교회, 고흥소록도교회)
5	- 연구학술세미나 - 소장자료 일제정기점검 (5월중)
6	
7	- 사업결산 및 전체회의
8	- 총회정기감사 및 위원회 보고서 작성제출

- ② 제102회기 예산안을 일부 항목추가(사적지발굴 답사비용)에 따라 배정된 예산 안에서 수정하여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하다. (102회기 배정예산 / 회의비: 1천만원, 연구관리비: 4천만원)
- ③ 남서울노회에서 보낸 (故) 권지상 선교사 총회순교자 등재에 관한 탄원서와 함께 지난 제100회 총회결의사항으로 수입받아 현재까지 연구 중이었던 (故) 권지상 선교사 총회순교자 지정의 건에 대해 현재 순교자기념사업부가 순교와 순직에 대하여 규정을 마련 중에 있고 순교자 지정등재 청원 건은 본 위원회가 맡아서 다룰 사안이 아니어서 본 건을 순교자기념사업부로 보내기로 하다.

### (2) 제2차 회의 (임원 및 사적지 지정분과임원 회의)

☞ 일 시 : 2018. 1. 4(목)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부산 초량교회 한국기독교역사 사적지 제3호 지정감사예배의 건은 1월24일(수)에 실시하고 예배순서의 건은 위원장, 서기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초량교회 사적지 지정감사예배에 관하여 각 신문사, 방송사에 사전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로 하다.
- ② 김제 만경교회 한국기독교순교 사적지 제2호 지정감사예배는 3월 5일~8일 사이에 실시하기로 하고 오후에는 전주 서문교회, 군산 구암교회 사적지 발굴 현장답사를하기로 하다.
- ③ 의성경찰서 한국기독교역사 사적지 제4호 지정감사예배의 건은 3월 13일(화) 오전 11시에 경중노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 오후에는 영덕 송천교회 사적지 발굴현장을 답사하기로 하다.
- ④ 사적지 지정현판은 일괄제작 진행기로 하다.
  - 한국기독교 역사사적지 제3호 초량교회
  - 한국기독교 역사사적지 제4호 구)의성경찰서 (주기철 목사 일제강점기 수난지)
  - 한국기독교 역사사적지 제5호 중리교회
  - 한국기독교 순교사적지 제2호 만경교회

(3) 제3차 회의 (사료분과 임원회의)

☞ 일 시 : 2018. 1. 16(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국노회 사료제출 협조공문 초안검토 건에 대하여 문구내용 중 “제출”을 “기증”으로 수정하기로 하다.
- ② 총회역사 사료수집에 대한 전국노회와 교회의 협조를 위하여 총회 역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역사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기독교신문에 공고하기로 하다.

(4) 제4차 회의 (임원 및 사적지 지정분과회의)

☞ 일 시 : 2018. 1. 24(수) 16:30

☞ 장 소 : 부산 초량교회당 회의실

☞ 결의사항

- ①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제3호 지정 감사예배 행사진행 및 순서상황을 점검하다.
- ② 김제만경교회 지정식(3월8일), (구)의성경찰서 지정식(3월13일) 일정을 재확인하다.

(5) 제5차 회의 (연구분과회의)

☞ 일 시 : 2018. 2. 8(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5월 예정인 총회역사위원회 연구학술세미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하다.
  - 가. 세미나 일정은 2018년 5월 17일 혹은 24일 중 하기로 하고 해당 세미나 일정에 강사의 강 의가 가능한지 의논 후 결정하기로 하고 분과위원장에게 일임기로 하다.
  - 나. 세미나 장소는 총회회관에서 하기로 하고 세미나 강사는 김남식 목사, 신종철 목사, 김효시 부총장, 장영학 목사로 하기로 하다.
- ② 제102회기 연구분과가 추진할 구체적인 사업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다.
  - 가. 총회홈페이지 내 역사위원회(총회역사관 사료홍보) 홈페이지를 구축하기로 하다.



나. 총회역사관 소개 및 이용안내, 사료기증 요청을 위해 간략한 팸플릿(단장형태)을 제작하여 목사장로기도회시 배부하기로 하다.

- ③ 기타 건으로 연구분과가 계획 중이었던 총회역사관 사료상세해설서 초안작업 대신에 연구학술 세미나 논문을 수록한 책자를 역사저널집으로 발간기로 하다.
- ④ 위 추진사업 안전에 대해 역사위원회 임원회에 승인받기로 하다.

**(6) 제6차 회의 (임원 및 고문전문위원 회의)**

☞ 일 시 : 2018. 2. 9(금)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13명 출석으로 개최되다.
- ② 위원장 김정훈 목사가 인사하다.
- ③ 역사위원회 소개하다.
- ④ 고문, 전문위원 소개하다.
- ⑤ 서기가 제102회기 역사위원회 사업계획 일정을 설명하다.
- ⑥ 연구분과위원장 신종철 목사가 연구분과 추진사업에 대하여 역사위원회 임원회 승인을 위해 보고하다.

가. 제2차 연구학술세미나 개최일정을 2018년 5월 24일(목)로 결정하다.

나. “장로교 역사와 신앙”(가제)로 저널집을 발행하기로 하다.

다. 총회역사관 소개 및 사료기증 홍보를 위한 팸플릿(1장짜리)을 제작하여 전국목사장로기도회시 배부하기로 하다.

라. 총회역사관 및 역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제작하기로 하다.

- ⑦ 김제만경교회 한국기독교 순교사적지 제2호 지정감사예배를 2018년 3월 29일(목)에 갖기로 하다.
- ⑧ 총회가 발행하고 있는 총회 주요결의사항 및 요람 책자내용 중 총회연혁 편에서 “1943년~1945년까지 3년간은 전시 관계로 총회를 열지 못하다.” 문구에 대하여 전문위원 장영학 목사가 일제 중심의 사관으로 기록된 위 문구 수정을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해당 문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총회임원회로 해당 부분의 수정을 요청하기로 하다.

- 아 래 -

수 정 전	수 정 후
“1943년~1945년 까지 3년간은 전시 관계로 총회를 열지 못하다.”	“1943년~1945년 까지 3년간은 일제에 의해 총회가 강제로 해산되어 총회를 열지 못하다.”

**(7) 제7차 회의 (임원 및 사적지지정분과회의)**

☞ 일 시 : 2018. 2. 22(목) 12: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2018년 3월 13일(화) 한국기독교 역사사적지 지정 감사예배 및 사적지 현장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하기로 하다.
  - 오전11시: (구) 의성경찰서 한국기독교 역사사적지 제4호 지정감사예배
  - 낮12시: 점심식사 및 이동

- 오후 2시: 의성 중리교회 한국기독교 역사사적지 제5호 지정감사예배
- 오후 4시30분: 영덕 송천교회 사적지 발굴 현장답사 진행
- ② 지난 회의시 2018년 3월 8일에 갖기로 한 김제만경교회에 대한 한국기독교순교사적지 제2호 지정감사예배를 2018년 3월 29일로 일정변경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진행하기로 하다.
  - 오전11시: 한국기독교순교사적지 제2호 지정감사예배
  - 낮12시: 점심식사 및 이동
  - 오후 1시 30분: 군산 구암교회 사적지 발굴 현장답사
  - 오후 3시 30분: 전주 서문교회 사적지 발굴 현장답사
- ③ 2018년 3월 27일(화) 낮12시, 법성교회 순교사적지 발굴 현장답사와 당일 오후 3시 광주양림교회에 대한 역사사적지 발굴 현장답사를 하기로 하다.
- ④ 행사순서자를 별첨과 같이 정하고, (구)의성경찰서, 의성중리교회, 김제만경교회 등 예배 및 행사순서자 변경 및 추가는 위원장과 서기에게 위임하기로 하다.

#### (8) 제8차 회의 (연구분과회의)

☞ 일 시 : 2018. 4. 18(수)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세미나일정을 2018년 5월 24일(목)로 하기로 하고, 순서자는 분과위원장에게 일임키로 하다.
- ② 세미나 강사순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다.  
1강: 김남식 목사, 2강: 김효시 부총장, 3강: 장영학 목사, 4강: 신종철 목사
- ③ 총회역사위원회 홈페이지는 6월말까지 기본시안을 만들도록 하고 서기 목사와 실무담당직원에게 위임하기로 하다.
- ④ 총회역사관 팸플릿(단장)은 제작하여 목사장로기도회시 배포하기로 하다.
- ⑤ 역사저널집은 9월 총회 전까지 제작하고 배포하기로 하다.
- ⑥ 2019년 3.1운동 100주년과 관련된 사항(심포지엄 및 소책자 제작 등)은 연구분과위원장에게 일임키로 하다.
- ⑦ 학술세미나 개최광고는 목사장로기도회 기간에 기독교신문에 광고하기로 하다.
- ⑧ 차기 모임을 2018년 5월 3일(목) 오전11시, 총회회관에서 모이기로 하다.
- ⑨ 학술세미나 책자는 100부 제작하기로 하다.

#### (9) 제9차 회의 (연구분과회의)

☞ 일 시 : 2018. 5. 3(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개회예배 및 연구학술세미나 순서를 아래와 같이 정하다.
  - 개회예배
    - 사회: 분과위원회 서기 정상목 목사
    - 기도: 역사분과위원 오광춘 장로
    - 성경봉독: 분과위 회계 윤중근 장로
    - 설교: 장차남 목사
    - 격려사: 장로부총회장 최수용 장로



축사: 서기 권순웅 목사, 회록서기 장재덕 목사

광고: 분과위원회 총무 박정권 목사

축도: 총회역사위원회 부위원장 함성익 목사

- 학술세미나

사회: 분과위원회 서기 정상목 목사

- 전체질의응답

진행: 분과위원회 총무 박정권 목사

- 총회역사관 현장설명회

진행: 총회역사관장 함성익 목사

② 총회역사위원회 연구학술세미나참석을 위해 전국노회에 공문 및 문자발송하기로 하다.

③ 연구학술세미나 개최광고는 목사장로기도회 기간에 기독교신문에 광고하기로 하다.

### (10) 제10차 회의 (임원 및 분과장 회의)

☞ 일 시 : 2018. 6. 11(월)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및 순교사적지 현장답사 진행에 대한 논의결과 아래 교회(8곳)에 대하여 제103회 총회시 해당 사적지 지정을 청원키로 하고, 해당 사적지에 대한 지정의의와 소개 글을 아래와 같이 담당을 정하여 준비하기로 하다.

가. 박창식 목사: 영덕송천교회(역사), 소록도5교회(역사, 순교), 순교자 권중하 전도사 사역지 5개 교회(순교, 해당 교회간 협의 후 진행)

나. 신종철 목사: 군산구암교회(역사), 고흥읍교회(역사), 광주양림교회(역사)

다. 김병희 목사: 전주서문교회(역사), 영광법성교회(역사), 송지동교회(역사, 단, 송지동교회에 대한 사적지 지정청원은 1년간 보류하기로 하다.)

② 총회역사관 소장자료 복사요청(전문위원 장영학 목사)의 건은 기증자 허락 하에하기로 하다.

③ 대구북성교회 70년사 발간시 총회역사화보집에 대한 사진자료 사용요청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④ 부산새누리교회 50년사 발간시 총회역사관 가이드북 자료 사용요청은 허락하기로 하다.

⑤ 총회역사관 가이드북 재고가 소진되어 차기 예산을 수립하여 다음 회기에 발행하기로 하다.

⑥ 총회역사저널집 「장로교역사와 신앙」은 총회출판국에 견적 및 제작을 의뢰하여 8월말까지 발간하기로 하다.

⑦ 3.1운동과 한국장로교(박창식 목사), 주기철목사와 의성 농우회사건(김병희 목사)에 맡겨 논문을 준비케 하고, 총회역사저널집 「장로교역사와 신앙」에 게재하기로 하다.

⑧ 사료분과에서 금번 회기 수집한 총회산하 노회와 교회의 100년사를 제103회 총회기간 중 특별전시회를 하기로 하고 사료분과에서 진행하기로 하다.

⑨ 이상 연구가 필요시 총회규정대로 연구비를 지급하기로 하다.

### 3) 임원회의

####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17. 12. 18(월) 13: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고문 및 전문위원은 지난 회기대로 하고, 전문위원에 박세형 목사를 추가하기로 하다.
- ② 총회역사관 관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관장에 함성익 목사(부위원장), 부관장에 박창식 목사(서기)로 겸임하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18. 4. 16(월) 13: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팜플렛(1장짜리, 역사관소개, 사료기증홍보 등)을 제작하여 목사장로기도회시 배포하기로 하고, 실무자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다.
- ② 사적지 지정을 앞두고 현지답사한 교회(영덕 송천교회, 영광법성교회, 군산구암교회, 전주서문교회, 김제송지동교회, 김제만경교회, 소록도교회)에 대한 자료정리를 서기 박창식 목사와 연구분과장 신중철 목사, 사료분과장 김병희 목사에게 맡기기로 하다. 또한, 이를 위한 연구비는 총회기준에 준하여 지급하기로 하다.
- ③ 한국기독교역사 사적지 지정규정(안)을 검토하여 차기 회의에 다루기로 하다. (별지)
- ④ 소록도교회 방문을 5월 21일(월)에 답사하기로 하다.(현지 낮12시에 모임)
- ⑤ '3.1운동과 기독교'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소책자를 발간하여 9월 총회시 배포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다. (100주년을 맞이하는 자세와 비전을 담아)

3. 결산

(2018. 7. 16 현재)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비 고
회의비	10,000,000	회의비	8,856,000	전체회의, 임원회의, 분과회의 등
연구관리	40,000,000	사적지지정감사예배	12,152,300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지정감사예배 (3호,4호,5호:초량교회,의성경찰서,중리교회) 한국기독교순교사적지 지정감사예배 (2호: 김제만경교회) / 3회
		연구학술세미나	5,860,000	기독신문공고:150만원 순서자여비:101만원 논문순서비:125만원 참석자식사비: 100만원 기타등
		사적지발굴 현장답사	2,120,000	소록도교회
		역사관 관리비용	1,201,200	역사관 벽면자료교체: 110만원 역사관 전등교체: 101,200원
		기타비용	3,660,000	사료기증 광고비: 175만원 역사관 홍보팜플렛: 122만원 기타 등
합 계	50,000,000	합계	33,849,500	잔액: 16,150,500원



## 한국기독교 역사 및 순교사적지 사적지 지정 조사보고서 (요약)

한국기독교 역사사적지	한국기독교 순교사적지
1. 전주서문교회(제6호) 2. 군산구암교회(제7호) 3. 군산개복교회(제8호) 4. 광주양림교회(제9호) 5. 영덕송천교회(제10호) 6. 고흥읍교회(제11호) 7. 소록도 5교회(제12호)	1. 소록도 5교회(순교자 김정복 목사) (제3호) 2. 순교자 권중하 전도사 사역지 6개처 교회 (제4호) 3. 법성교회(제5호)

※ 위 사적지에 대하여 총회역사위원회 임원 및 사적지 지정분과임원, 분과장이 함께 현장답사를 진행하고 위원들의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요약하였음



### 1. 전주서문교회 (삼산노회)

• 역사적 의미:

〈무형〉

1. 전주서문교회는 미국 남장로회 선교지부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전남 지역 최초의 교회이다. 전주서문교회는 지역의 중심교회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2. 김인전 목사, 배은희 목사, 장애인 선생, 이거두리 등은 교회사적으로 의미있는 인물들이다. 특히 김인전

목사와 배은희 목사는 전주를 비롯한 전북, 전남, 충청권 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들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다가공원 안에 전주를 거쳐 간 관찰사나 부사의 공덕비를 모아 세워 놓은 그 옆자리에 전주시민들이 김인전 목사와 배은희 목사의 공덕비를 세웠다. 지금은 다가공원 안에 있던 공덕비를 전주서문교회 마당으로 옮겼다.

〈유형〉

### 1. 종각

전주서문교회 종각은 목재로 높이 6.8m의 사각기둥을 세우고 기둥 사이를 가로대와 대각선으로 연결하여 그 위에 팔각지붕을 얹은 보기 드문 종각이다. 팔각지붕은 우진각지붕 위에 맞배지붕을 올려놓은 것과 같은 형태의 지붕으로 측면에도 지붕이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우진각지붕처럼 삼각형 끝점까지 기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박봉부분이 만들어지는 지붕 형태이다. 전·후면에서 보면 갓을 쓴 것과 같은 형태이고 측면에서는 사다리꼴 위에 맞배지붕의 측면 박공을 올려놓은 것과 같은



형태이다. 팔작지붕은 조선시대 다포 집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며, 부속채 보다는 정전건물에 사용되었다. 현존하는 권위건물의 지붕형태 중에 가장 많은 형태의 지붕이다. 이 종각은 한국교회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종각이며, 가장 화려한 종각으로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크다 하겠다.

## 2. 교회문부

전주서문교회는 문부일체가 보존되고 있는 아주 드문 교회이다. 교적부

는 교회 설립 초창기부터 1925년까지 교인들의 가족관계는 물론 학습 세례일자까지 소상하게 기록하였다. 교우세례문답책은 1910년~1950년까지 교인들의 세례문답 내용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 당회록은 1909년부터 현재까지 비교적 충실하게 기록하여 보존하고 있다. 그리고 제직회록도 잘 보존되어 있는 편이다.

## 3. 전주서문교회 역사와 전라선교 25주년 역사

1935년 교회 신축 머릿돌에서 나온, 전주서문교회 역사, 성경전서, 전라선교 25주년 역사 중 특히 전주서문교회 역사와 전라선교 25주년 역사는 호남지역 교회사의 귀중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 4. 화분대

1937년 9월 15일 신흥학교, 기전학교 학생들이 신사참배로 폐교가 결정되자 그 동안 전주서문교회의 사랑의 정을 잊지 못하여 드린 화분대 두 대는 지금까지 교회의 성구(聖具) 변천사를 보여주는 가치 있는 자료이다.

### • 사적지 지정 근거

전주서문교회는 1893년 전주 은송리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민족 복음화와 호남지역 선교와 복음화의 구심점 역할을 다하였다. 또한 이곳은 미국 남장로회 최초의 선교지부가 설치된 곳이다. 이것만으로도 전주서문교회는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로 지정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다 하겠다. 그 중에도 무형의 기독교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는 인물들(김인전 목사, 배은희 목사, 방애인 선생, 이거두리)이 있으며, 유형의 기독교 유물인 팔작지붕 종각, 화분대, 교회문부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유무형의 기독교 문화와 유물들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신앙과 정신을 말해주고 있다. 일반 사회에서는 역사문화적으로 작은 흔적만 있어도 그것에 유무형의 문화적 가치를 부여하고 되살려 지역의 자산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실정인데 총회가 뒤늦은 감은 있지만 기독교의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여 보존하고 문화유산에 깃들여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과 삶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103회 총회에서 전주서문교회를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로 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 2. 군산구암교회 (군산동노회)

군산 구암교회의 설립 시기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주장<sup>19)</sup>이 있으나 주명준은 1899년 12월 21일 남장로교 선교사 전킨의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sup>20)</sup>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한 7인의 선발대는 호남지방 선교를 1893년에 시작하였고 1896년 2월에 전킨이 가족이 군산에 정주하고 두 달 후에 드루의 가족이 군산에 이사해 오자 군산 선교부가 성립되었다. 그런데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는 군산 선교부를 없애고 나주로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드루 선교사(의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드루는 선교사들을

설득하면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군산선교부는 존치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장소는 임피의 궁말로 이전하기로 했다. 궁말은 구암산을 끼고 흐르는 두 지류(구암천, 둔덕천)가 활 모양으로 휘어지면서 흐른다고 해서 ‘활 궁’(弓)을 붙였고, ‘말’은 리(里)를 뜻하는 순우리말이었다. 고종 12년(1875)에 만들어진 ‘전라북도 군산진 지도’를 보면 ‘임피현 궁울리’였는데, 일제가 식민통치를 시작 하면서 ‘옥구군 구암리’로 바꿨다. 군산 선교부를 궁말로 이전한 이유는 머지 않아 군산항이 개항되어 일본인들이 대거 몰려 들 것이라 추측되었기 때문이다. 전킨과 드루는 그들의 선교를 돕는 배가 정박하기 좋은 궁말의 언덕을 사서 집을 신축하였다. 신축한 전킨의 집에서 궁말교회(현 구암교회)가 시작된 것이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1900년 옥구군(沃溝郡) 구암리교회(九岩里教會)가 설립(設立)하다. 선시(先是)에 선교사(宣教師) 전위렴(全緯廉, William M. Junkin, 1865~1908), 의사(醫師) 유대모(柳大模, A. Damer Drew), 전도인(傳道人) 장인택(張仁澤)이 당지(當地)에 래주(來主)하여 열심전도(熱心傳道)함으로 신자(信者)가 점가(漸加)하여 예배당(禮拜堂)을 신축(新築)하고 기후(其後)에 오인묵(吳仁默) 장로(長老)로 장립(將立)하여 당회(堂會)를 조직(組織)

19) 구암교회의 설립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첫째, 1893년에 설립되었다는 의견이다. 1893년 1월 선교사공의회에서 호남지방을 선교지역으로 배당받은 전킨(William M. Junkin, 전위렴)과 드루(Adamer D. Drew, 위대모) 선교사는 공의회의 유일한 한국인 장인택(張仁澤)을 조사로 하여 호남선교를 시작하였다. 이 장인택 조사가 이후 구암교회의 회계집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를 교회 설립연도로 하는 주장이 있다. 둘째, 1896년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 이것은 1896년 4월 6일 전킨 선교사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전킨과 드루는 1896년 4월 가족과 함께 군산으로 이사해 군산 스테이션을 설립하였다. 당시 50불을 주고 구입한 두 선교사의 집 가운데 전킨의 집에서 드린 주일예배에서 장인택, 김봉래(金蓬來), 송영도(宋永道) 등 세 사람이 문답을 거쳐 원입교인이 되었는데, 이 시점을 구암교회의 시작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셋째, 1899년이 교회 설립 시기라는 주장이 있다. 군산항이 개항되면서 일본인들이 몰려들자 전킨과 드루는 그들의 선교를 돕는 배가 정박하기 좋은 궁말의 언덕을 사서 집을 신축하게 되었고, 남장로교 선교부의 결정에 의해 군산 스테이션이 1899년 12월 21일 임피 궁말로 옮겨 첫 예배를 전킨의 집에서 드렸다. 이때 전킨의 집에서 예배드렸던 교인들이 흩어지거나 궁말교회로 옮겨오면서 궁말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1899년에 구암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의견이다.

20) 주명준, 『전북의 기독교전래』(전주: 전주대학교출판부, 1998), 140.

하얏고 목사(牧師) 김필수(金弼秀) 선교사(宣教師) 부위렴(富緯廉) 장로(長老) 양응칠(梁應七), 김성삼(金星三), 박연세(朴淵世), 고석주(高石柱), 유대남(劉戴南), 이창규(李昌奎) 조사(助師) 이수현(李守鉉)등(等)이 상계시무(相繼視務)하니라.

궁멸 전킨의 집에서 1899년 12월 21일 예배드리므로 시작한 궁멸교회가 다음에 1900년에 정식교회로 설립된 것이다. 궁말의 전킨 집에서 모이는 숫자가 늘어나면서 더 이상 그곳에서 예배드리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성도들은 교회당 신축에 뜻을 모아 1916년에 7자 교회를 세웠고, 43년 후에는 석조교회를 건축했다. 초창기 궁멸교회에서 예배드린 평균 교인수는 40~50명이었다.

구암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구암동산에는 알렉산더(A. J. A. Alexander) 의사를 기념하기 위해 안락소학교, 전킨의 부인인 메리 레이번(Mary Leyburn Junkin)에 의해 1902년에 시작된 군산영명학교(현 제일고교), 여선교사 스트레버(Frederica E. Straffer)에 의해 1903년 시작된 군산 멜본딘 여학교(현 영광여중고)등이 설립되어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1904년 구암 예수병원 등도 설립하여 교육과 의료사업을 진행하였다. 근대교육과 근대문명이 구암에서 시작된 것이다. 1907년의 경우 군산선교부 구내에 있었던 구암 교회의 수세자는 모든 31명이었는데 그들 대부분이 바로 남학교와 여학교의 학생들이었다.



또한 구암교회는 한강 이남과 호남 최초의 군산 3·1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교회였다. 민족의 자주독립을 외쳤던 3·1만세운동은 군산의 구암동산에서 3월 5일에 발원되어 총 28회에 걸쳐 30,700명이 참가하였고, 사망 53명, 실종 72명, 부상자가 195명 발생하였다.

하지만 구암교회의 옛 흔적은 없어졌고 지금의 구암교회 앞에 있는 예배당은 1959년에 건축한 예

배당으로 군산시에서 3.1운동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현재 교회의 현황을 살펴 보면 구(久) 구암교회 예배당은 현재 군산시에 군산 3·1운동기념관으로 개관하였다. 기념관 안에는 초기 성경과 예배 용품을 비롯하여 만세운동에 대한 설명 및 참여자들의 사진과 그 시절의 모습이 모형으로 만들어져 전시되어 있다. 특히 내부에는 독립운동가 문용기가 3·1만세 시위 당시 입었던 피 묻은 두루마기가 전시되어 있다.

## 사적지 지정근거.

### 무형의 자산

- 1)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교회이다.
- 2) 전북지역 근대문명과 근대교육이 시작된 곳이다(영명학교, 멜로딘 여학교, 구암예수병원 설립)
- 3) 한강이남에서 처음으로 3.1운동이 일어난 장소(군산 구암교회 성도 28명 이상이 주동 및 가담, 14명이 독립 유공자로 추서됨)



### 유형의 자산

- 1) 현재 군산3.1운동역사공원안에 있는 구(久) 구암교회 예배당(석조건물)은 3.1운동 역사 영상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군산의 3.5만세운동의 시발점이 된 장소이다.  
군산시가 2007년 매입하였으며 지금은 3.1운동 영상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 2) 최근에 건립된 '군산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의 외형은 100년전 영명학교를 복원했다.
- 3) 호남선교100주년기념비와 군산 3·1운동 기념비가 서있다.



### 3. 개복교회(군산노회)

개복교회는 미국 남장로교단 선교부에서 파송한 7명의 선교사들 중 이눌서(W.D. Reynolds) 선교사와 유대모(A. Drew)의료 선교사가 1894년 3월30일 인천에서 배을 타고 군산에 상륙하여 군산 참사에게 복음을 선포한 순회전도와 함께 시작하고 이것이 군산교회의 씨앗이며 군산에서 시작한 첫 교회이다.

1895년 3월 전위렴(W. M. Junkin) 선교사(제1대 담임목사)와 유대모 의료선교사 그리고 한국인 장인택 씨가 군산에 도착하여 선교 활동을 계승하면서 그해 8월 권산 선창가(현, 수덕산)에 집 두채를 매입하였다. 한 채는 군산 선교부의 군산교회로, 다른 한 채는 진료소로 사용하며, 선교활동과

의료 활동을 분리시켜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하여 큰 성과를 얻었다. 그리하여 1896년 7월20일에 송영도(고 송만남 장로의 부친)씨와 김봉래씨가 군산교회에서 호남 최초로 세례를 받았다.

1899년 12월 19일 미국 남장로교단의 군산선교부가 당시 일본인 거류지역(현 군산시 영화동)의 확장으로 인해 궁말산(임피군 개정면, 구암리, 현 구암교회)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2월 21일 주일부터 군산 선교부는 궁말산에서 예배를 시작하였고, 순회 선교사들은 군산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였다. 그러나 일본인 거류지역의 확장과 군산항와 영동상권의 상업적 발전, 그리고 궁말산의 열악한 지리적 교통문제로 군산 담당 선교사였던 어어략 선교사와 최흥서 조사, 홍종익씨 그리고 군산교회 교인들이 구복동 77번지에 예배당을 직접 건축하여 예배를 드렸고 그 후 나날이 부흥되는 군산교회는 1906년 현 개복동 13-1번지로 이전하였다. 이때부터 군산교회는 '군산 개복동교회'라고 호칭되었다. 그러나 전라노회록에 보면 이상의 두 이름이 1915년까지 혼용되었다. 그리고 1982년 그 이름을 '개복교회(開福教會)'라고 정하였다.

1919년 3.1만세운동이 군산 3.5만세운동으로 전개되었는데, 본교회 교인들(김성은, 정지선, 홍종익, 전종익, 그리고 유희순)이 선도적 역할을 진행하였다. 1930년 제5대 홍종필 담임목사는 제19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을 역임하셨고, 본교회 강단에서 설교하시다가 순직하였다(1935년 향년 48세)

### 사적지 지정근거

- 1) 개복교회는 100년이 훨씬 넘는 역사를 지닌 교회로, 군산 구암교회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군산지역 최초의 교회이다.
- 2) 한강 이남에서 처음으로 3.1운동에 개복 교회 교인들(김성은, 정지선, 홍종익, 전종익, 유희순 등)이 선도적 역할을 진행하여 조국독립과 민족운동에 앞장선 교회이다.
- 3) 순교자의 숨결을 담고 있는 교회이다(1950년 6.25 전쟁 때 청년회장 백형기 집사와 고인영 성도가 순교의 피를 흘렸다).
- 4) 한국교회사 관련 개복교회는 본 교단에서 한국인 최초 총회장인 김필수 목사를 배출한 교회이다 (제3대 담임이었던 김필수 목사는 1915년 제4대 조선예수교장로회 한국인 최초 총회장으로 사역을 했으며 성경번역에도 큰 도움을 남겼다).

### 4. 광주양림교회

1904년 12월 25일 유진 벨(한국명: 배우지) 선교사의 임시 사택에서 드렸던 크리스마스 예배는 광주에서 드린 최초의 공식적인 개신교 예배였으며 동시에 양림리교회(현, 양림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첫 예배였다. 이때 참석하였던 사람은 김윤수 집사 가정, 변창연 조사 가정, 그리고 요리사였던 서명석을 포함한 40명이 참석하였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 상권을 보면 1904년에 양림리 교회 설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광주군(光州郡) 양림리교회(楊林里教會)가 성립(成立)하다. 초(初)에 선교사(宣教師) 배우지(裴裕祉, E. Bell, 1868~1925), 오기원(吳基元, Clement C. Owen, 1867~1909) 조사(助師) 변창연(邊昌淵)과 교우(教友) 김윤수(金允洙)를 동반(同伴)하여 목포(木浦)로부터 본리(本里)에 도착(到着)하여 사택(舍宅)을 정(定)하고 열심전도(熱心傳道)한 결과(結果)로 최흥종(崔興琮), 배경수(裴景洙) 등이 신종(信從)하여 자기사랑(自己舍廊)에서 예배(禮拜)하다가 신도(信徒)가 점차증가(漸次增加) 됨으로 북문내(北門內)에 와가(瓦家)로 예배당(禮拜堂)을 건축(建築)하고 후(後)에 김윤수(金允洙), 최흥종(崔興琮) 2인(二人)을 장로(長老)로 장립(將立)하여 당회(堂會)가 조직(組織) 되얏고 기후(其後) 남궁혁(南宮爌), 이득주(李得珠), 홍우중(洪祐鐘)이 계속시무(繼續視務)하니라.

양림리교회라는 명칭은 양림리 선교부 동산안에 위치한 배우지 목사의 사택에서 예배드리는 기간에 양림리교회라고 불리웠다. 그후 1906년 북문안으로 옮긴 후에도 전혀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가 1914년 전라노회에서 비로소 북문안교회라는 이름을 최초로 사용하였다. 그후 1919년 남



문밖으로 교회당을 옮긴 이후로 남문밖교회라고 불리웠다. 그러다가 남광주역의 건설과 함께 금정이라는 도로가 생김에 따라서 금정교회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기로 하였다. 그리고 1924년 양림동으로 교회가 옮김에 따라서 양림교회로 불리우게 되었다. 배유지 선교사는 1908년 그의 사택에서 몇 사람의 여학생을 모아놓고 이듬해엔 남학생까지 모집해 성경을 가르친 것이 시초가 되어 오늘의 수피아 여학교와 송일 학교로 발전하게 되었다.

양림교회는 1912년 8월에 김윤수, 최홍중 두 집사를 장로 장립시키고 당회를 조직하였다. 1916년 3월에 남궁혁(한국인 최초의 평양신학교 교수), 이득주 양인을 장로로 장립되었고, 1916년 3월 8일에 이기풍목사(한국인 초대 담임목사)가 양림교회 제2대 당회장 부임하여 사역하였다.

또한 광주지역의 3.1만세 운동의 주된 세력은 양림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송일학교 수피아 여학교 학생들, 제중원(현 광주기독병원) 직원들의 주도로 만세시위가 벌어져 수많은 이들이 투옥됐으며, 1937년에는 신사참배 반대운동으로 일제에 맞서던 김현승 백영흠 등 교회 청년들이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6·25 동란 중에는 양림교회 제8대 당회장으로 시무하던 박석현 목사가 가족과 함께 순교의 길을 걸었다.

### 사적지 지정 근거

#### 무형의 자산

- 1)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 광주 지역 최초로 설립된 교회이다.
- 2)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에 앞장선 교회이다.
- 3) 신사참배에 항거하여 오늘까지 보수주의 신학과 신앙을 지켜온 교회이다.
- 4)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교회이다.

#### 유형의 자산

광주 양림교회가 우뚝 서있는 양림동 일대는 오래 전부터 광주광역시와 남구에서 '역사문화마을'로 조성하였다.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 유적지가 자리 잡고 있으며 수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이다.

### 5. 영덕 송천교회

영덕지역 기독교는 대구와 안동을 통하거나 포항을 통하여 전해졌다. 영덕 최초의 교회는 낙평교회를 설립한 김태두는 대구에서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1901년부터 안동을 출발한 선교사는 영덕군 지품명 황장재를 넘어 낙평동에 복음을 최초로 전했으며, 1907년 영덕 최남단 남정면에는 포항을 통하여 양성교회가 설립되었다.

1910년 1월 한국교회 부흥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날 때 권찬영 선교사는 안동선교기지의 담당 선교사로 부임하면서 영덕, 안동 등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다. 특히 영덕 최초의 교회인 낙평교회가 최봉희 씨의 정자 벽우정에서, 두 번째 교회인 화천교회는 김영임 씨 정자 화수재에서, 영덕 지역의 3.1운동의 중심인 송천교회는 권씨 정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선교사들은 선교활동과 더불어 교육을 중시하여, 1908년부터 낙평, 화천, 매정, 송천, 삼읍, 원항, 삼사, 영덕, 원전, 영해 등 교회가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인재를 양성했다.

송천교회는 '명사 20리'로 불리는 해안가를 따라 울창한 소나무 숲이 이어지고 냇물이 흐르는 등



기원을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후 교세가 확장되어 하양에서 이거해 온 김치운 씨의 집을 새로운 예배처소로 정해 사용했다.

현재의 송천교회의 예배당은 1953년 3월에 미국선교회에서 보내온 교회복구자금 105만원을 기금으로 건축자재를 구입하고, 같은 해 9월 중순에 현재 예배당 건물을 준공하였다. 한때는 유치원을 운영할 만큼 많은 어린이들로 북적였고, 인근 수많은 장로교회들이 모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송천예배당은 울진 간 7번 국도변에 위치한 송천마을 초입의 넓은 대지 서쪽에 본당과 종탑이 있으며 주변에는 마당과 정원으로 꾸며져 있다. 그때 건축된 건물은 예배당 벽체의 균열, 일부 목부재와 슬레이트 지붕의 노후로 부식현상이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송천예배당의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하여 2006년 12월 4일 등록문화재 제288호로 지정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으로 2014, 2015년의 약 2년 동안 약 3억 5000만원을 들여 복원공사가 이루어졌다. 예배당 곁에는 잘 어울리는 부속건물도 생겼다.

### 사적지 지정 근거

송천교회는 백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로 영덕지역 기독교 전파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특히 경북지방의 3.1운동 가운데 가장 격렬했던 영덕지방 3.1만세운동의 중심이었고, 송천교회에서만 독립유공자 20여명 이상이 배출된 민족운동의 본산이기도 했다. 이에 3.1운동 백주년을 맞은 이즈음에 영덕지방의 3.1운동과 송천교회의 역할의 재조명이 요구된다.

송천예배당의 건축양식은 비록 후대인 1953년에 건축되었지만 한국교회의 건축양식에서 독특한 면을 보인다. 전통적인 교회 양식과는 구별되는데, 특히 입구가 포치 형태를 띠고 있는 점은 개항 이후에 나타나는 서양의 영향을 받은 건축 양식의 표현으로 한국교회 예배당 건축사에 중요한 사료이다. 이러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6년에 등록문화재 제288호로 지정되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후에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이루어져서 외관상 현대적인 느낌을 풍기고 있지만 그 양식이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고, 또한 교회가 가지는 무형적 자산이 보존되어 있는 실정이다.

위에서 언급한 역사적 의미, 건축사적 의미, 민족운동사적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여, 제103회 총



회에서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로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 6. 고흥읍교회

고흥읍교회는 고흥지역에 설립된 최초의 교회로 1905년 4월 시작됐다. 미국 의료 선교사 오원(C C Owen·1867~1909)의 전도로 하나님을 믿게 된 목치숙, 신우구씨 등 6명이 신씨의 한약방에서 예배를 본 것이 이 지역 모교회의 시작이다. 1969년 1월에 작성된 고흥읍교회 연혁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1905년 4월10일 미국 남장로 교 선교사 오원 목사가 처음으로 고흥땅을 밟으며 복음의 씨를 뿌려 전도하다.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반면에 외면을 한 자가 많았다. 1905년 4월 25일 선교사 오원목사가 재차 복음을 전파하니 당시 한약방을 경영하는 신우구씨를 비롯한 목치숙, 박무응, 박용섭, 설준승, 이충흥씨 등이 전도를 받고 소아 정수근, 김태수 등 몇몇의 소아들과 함께 신우구씨 한약방에서 처음 예배 드리니 복음의 첫 열매가 맺게 되었다. 교회는 외부의 많은 조소와 비방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처음으로 서리집사 박무응, 목치숙, 박용섭씨등을 세우다, 1906년 목치숙씨가 전남노회 순천지방회에서 조서로 임직받고 초대 교역자로 시무하니 한인으로서 본 교회 처음이 되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 사기』 상권 에서는 고흥읍교회 설립을 1906년으로 언급하고 있다.

고흥군(高興郡) 옥하리교회(玉下里教會)가 성립(成立)하다. 선시(先是)에 사(宣教師) 오기원(吳基元, Clement C. Owen, 1867~1909) 조사(助師) 오태욱(吳太郁)의 전도(傳道)로 신우구(申瑀求), 박용섭(朴容燮), 박무응(朴茂應), 이춘흥(李春興), 이정권(李正權) 등(等)이 밋고 사저(私邸) 혹은(或) 서당(書堂)에서 회집예배(會集禮拜)하니라.

옥하리는 현재 고흥읍 교회가 세워졌던 옛 주소이다. 정리해보면 1905년 신우구씨 한약방에서 최

초의 예배가 드려졌고 그 다음해에 옥하리교회(현, 고흥읍교회)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07년 고흥읍교회는 ‘한약방이 좁아 서문 동정지(東町地) 뒷동산에 16평의 예배당을 건축했다’고 적었다. 그 이듬해 ‘교회는 날로 부흥 중이며 많은 소아들이 모이게 되었으니 멀리 10리밖에 호형에서 많이 아이들이 모이었는데 특히 소아 박만돌군이 열심히 단이다’라고 기술했다. 고흥읍교회의 개척자들은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성장통을 겪어냈다. 전도도 열심히 했지만 1907년 국제보상운동이 벌어졌을 때는 앞 다투어 성금을 기부하는 등 겨레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아낌없이 표현했다.

고흥읍교회를 걸출한 목회자들이 사역했던 곳이었다. 한국인 최초의 목사이자 총회장을 지낸 이기풍 목사(제2대목사)가 자신의 첫 사역지 제주도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사역한 곳이 바로 고흥읍교회였고, 소록도의 성자로 불리는 김정복 목사(제3대목사)가 신사참배에 반대하다 투옥의 수난을 당한 것도 고흥읍교회를 담임하던 시절이었다. 또한 한국보수신앙운동을 주도한 정규오(1914~2006) 목사는 6대 담임목사였다. 1953년 부임한 정 목사는 ‘전란 중 많은 계몽운동(공산주의와 기독교)을 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했다’라고 서술했다.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보수적 기독교운동을 했다는 뜻이다. 그 재임 시인 1954년 지금의 석조 예배당 기공식이 이뤄졌다. 한데 그 성전 터는 일제 강점기 신사 터였다. 하지만 지역사회는 교회가 신사 터에 예배당을 짓겠다고 하자 핍박했다. 읍내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좋은 위치인 것과 기독교 배척 정서 때문이었다. 우상의 전당인 곳에 하나님을 거룩한 성전대지와 성전을 건축케 되니 군민과 유지들이 결사반대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당시 치안을 맡아 수고하시던 이제국 경찰서장의 노고와 협조가 큰 공이 되어 1957년 완공을 보게 되었다. 이후에 고흥읍교회는 신학적 문제, 교단 총회의 분열의 여파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분립의 아픔을 겪으며 고흥읍교회에도 적지 않은 상흔들이 남았다. 그렇지만 고흥읍교회는 여전히 고흥복음화를 위해 정진하며, 약한 교회들에게까지 힘을 보태는 어머니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 고흥 최초로 설립한 유치원을 통해서도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냈다. 고흥읍교회는 역사가 이제 120주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 사적지 지정 근거

- 1)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고흥읍 최초의 교회이다.
- 2) 위대한 목회자들의 숨결이 담겨 있는 곳이다 (이기풍목사, 김정복목사, 정규오목사 등)
- 3) 고흥지역에 조국독립과 민족운동(국제보상운동, 3.1운동등)을 주도했던 곳이다.

### 7. 법성교회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과 좌익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은 122,799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전라남도 지역에서 학살당한 민간인이 43,511명으로 전체의 72.6%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영광군의 피해가 가장 컸는데 전라남도 지역에서 학살당한 민간인 43,511명 중 절반에 가까운 21,225명이 영광군에서 피살되었다. 특히 열살 이하 어린이가 2,500여 명으로 영광군 전체 피살자 21,225명의 12%에 달하였으며 전국 여성 피살자의 절반 가까운 7,914명이 이 지역 여성들이라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그것은 일가족이 학살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영광군에는 7월 23일 인민군이 들어왔는데 이때부터 영광이 완전히 수복된 다음해 2월 20일까지 인민군 잔당과 빨치산(좌익)이 남아 있었다. 이들은 9·28 수복 후 북으로 떠났지만 그중 인민군 잔당과 빨치산이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잔존해 있었다. 잔존해 있는 인민군 잔당과 빨치산 때문에 영광은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의 천하였다. 그래서 영광 사람들은 빨치산을 밤손님이라



고 불렀다.  
 당시 영광  
 군 백수면 천  
 정리에 살던  
 한금례(88)씨  
 의 증언에 따  
 르면, 인민군  
 들은 자주 선  
 택을 강요하  
 였는데, 같은  
 마을에 살던  
 한 여인이 친  
 정 아버지의  
 목숨과 시댁  
 식구의 목숨  
 가운데 하나  
 를 선택해야

하는 가슴 아픈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영광지역에서 벌어진 학살의 특징은 대상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일가친척을 모두 학살했다는 점이다. 또 학살하는 방법은 무기가 없어 주로 죽창이나 칼로 학살하였다.

특히 영광군 법성포에서는 영광군 여러 면(面)들과 같이 인민군 잔당과 빨치산에 의해 민간인들이 학살당한 곳이다.

### 사적지 지정 근거

한국기독교순교자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단순교가 있었느냐를 규명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순교자 개개인이 죽는 순간 신앙고백이 있었느냐? 그리고 복음 증거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했느냐? 에 대해 객관적인 증인이나 그에 따르는 자료들을 검토하여 집단순교지로 규명하는 것이 한국기독교순교자사적지 지정의 기본 요소이다.

‘법성교회의 7인의 순교자’ 경우 이미 집단순교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김종인 목사와 박옥남 집사 외에는 죽는 순간 신앙고백이나 복음 증거자로서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증인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법성포지역의 경우 인민군들이 기독교인들의 명단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색출한 사실이다. 당시 인민군들은 점령지에서 기독교인이나 부르주아지(지주, 공무원 등) 민간인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가서는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과 공산주의 운동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연설을 하였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를 부정하도록 강요하는 한편 기독교 또는 공산주의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은 찾을 수 없지만 이웃 염산교회(77명), 야월교회(65명), 백수읍교회(32명), 영광대교회(2명), 묘량교회(8명)와 같이 법성교회에서도 김종인 목사 외에 교인 24명 이상 되는 교인들이 죽는 순간 기독교와 공산주의 사이에 어느 한쪽을 선택할 것을 위협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들도 동일한 신앙고백과 복음 증거자의 자세를 견지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미 제100회 총회에서는 염산교회를 한국기독교순교사적지 제1호로 지정하였으며, ‘법성교회 7인의 순교자’에 대해서도 제99회 총회에서 순교자로 등재하는 한편, 제102회 총회 순교사업부 주관으로 2018년 3월 27일에 ‘법성교회 7인의 순교자’ 등재 감사예배를 드렸다.

따라서 총회는 법성교회를 한국기독교순교사적지로 지정하여 이들 순교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 순교자들의 순교자적인 거룩한 신앙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일에 총회와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앞장서야 하겠다. 이번 제103회 총회가 법성교회를 한국기독교순교사적지로 지정하여 ‘순교는 교회의 씨가 되었다’는 터툴리안(Tertulian)의 증언처럼 총회와 교회가 순교신앙의 기초 위에 다시 일어나서 도약(跳躍)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겠다.

### 8. 소록도 5개 교회

#### 소록도 병원의 시작

소록도교회의 역사를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록도 병원의 시작을 알아야 한다. 1910년 한일강제 합병 이후 여수, 부산, 대구 등에 있었던 한센씨병 치료에 국민적 반응이 좋았지만 다 수용할 수 없는 관계로 총독부에서 착안한 것이 한센씨병 개설이었다. 이에 격리 수용에 적합한 소록도를 선택하고 1915년 2월에 섬 주민들을 설득하여 소록도 서북쪽에 땅을 매입하여 1916년 1월에 47동의 병동과 병원본관을 준공하고 전남 도립 자혜원으로 개원하여 첫 100명을 이주시켜 치료받게 하였다.

#### 소록도교회의 창립

첫 5년간은 일본원장은 매일 일본 천조대신(天照大神)을 숭배하도록 강요했다. 2대 하나이젠기스원장이 부임하면서 소록도에도 기독교를 허락하여 1922년 10월 8일 일본 성결교단

다나카신사부로 목사가 총독부의 포교 허가를 받아 포교한 것이 소록도교회의 창립이 되었다. 이때 최초로 수십 명이 신앙을 작성하고 모여 예배를 드린 곳이 구복리 1호사였다. 입원환자들이 늘어났지만 다나카 목사는 월 1,2회





순회로 왔기에 그의 통역관인 박극순 씨를 교회지도자로 세워 주일과 수요일에 예배를 주관케 했다. 1923년 11월 18일에는 최초로 남자 40명, 여자 4명이 구복리 서해안 백사장 앞에서 다나카 목사의 집례로 세례를 받았다. 병실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원장은 일본 천조대신 신상을 예배소로 허락하므로 그해 성탄절을 성대하게 지켰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시대

1946년 4월에 신사참배로 옥고를 치르고 출옥한 애양원교회 손양원 목사는 고흥 길두교회 김정복 목사를 모시고 와서 교회재건을 위해 역사하던 중 10일 동안 공회당에서 부흥사경회를 실시했다. 이때 장로교회 헌법을 가르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시대를 열고 김정복 목사를 초대 담임목사로 모시게 되었다. 공동의회를 열고 장로를 피택하고, 1946년 6월 13일에 역사적인 장로장립식을 거행하여, 중앙교회 김차동 장로, 북성교회 김민옥 장로, 남성교회 박소도 장로, 서성교회 서원갑, 이성근, 황중오 장로, 신성교회 최장식 장로, 동성교회 최병수 장로였다. 손양원 목사가 안수 기도하고 김정복 목사는 공포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소록도교회 당회를 조직하니 초대 당회장에 김정복 목사, 당회서기에 김민옥 장로를 선출하였다.

김정복 목사는 충남 서천군 한산면 종지리에서 1882년 6월 10일 출생하여 구한말 전주부를 지키는 장병으로 충실한 군생활을 하다가 일제 탄압으로 해산되니 생활이 어려워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지원하여 고생하다가 귀향했다. 한일강제합병을 보면서 민족운동은 기독교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제9회를 졸업했다. 전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하던 중 1940년 전국 목사 장로 193명이 체포 구금될 때 구금되었다. 여론의 악화로 모두 석방되었지만 그해 11월에 애국심과 부활신앙이 강한 순천지방 15명의 목회자를 재 구속했는데 이때 김정복 목사와 오석주 목사(1937-1942년에 소록도교회 시무)도 포함되었다. 이들은 1-3년형이 확정되어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김정복 목사는 갖은 회유가 있었지만 모든 것을 물리치고 소록도교회에 부임해서 초대 당회장이 된 것이다.

1946년 6월에 장안리교회를 설립하니 소록도 7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김정복 목사는 소록도교회 당회장으로 부임하기 전 제주중앙교회를 시무했고, 1918년 5월에는 별교읍교회, 1920년 9월에는 고흥읍교회 및 길두교회를 시무하기도 했다.

### 6.25 수난과 김정복 목사의 순교

1960년 8월 5일에 인민군 40여명이 소록도까지 침입했다. 원내는 인민위원회, 청년동맹위원회가 조직되고 추종자들과 불신자들이 규합하여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고, 세례교인들을 강제로 이동시켜 교회 간판을 내리고 인민공화국 간판을 달고 찬송과 기도 대신에 인민공화국 노래를 가르치게 했다. 이때 김정복 목사의 모든 활동도 중지 당했다.

교인들은 김정복 목사를 향해 잠시라도 피신하라고 눈물로 청원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 연약한 양떼를 버릴 수가 없노라”며 거절하고 “내 늙은 목숨 살자고 도망갈 수 없다”며 평소에 늘 기도하던 대로 굴날부리(신생리 마을 뒤편 바위) 동굴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1950년 8월 28일 원생들의 밀고에 의해 강제로 고흥 정치보위부로 끌려갔다. 끌려가는 김 목사를 위해 교인들이 울부짖자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사랑하는 소록도 성도들아 신앙질재 굳게 지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니 안심하라”며 손을 흔들고 간 것이 그의 마지막이었다.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되면서 전의를 상실한 인민군들이 9월 27일에 퇴각하면서 고흥경찰서에 수감중이던 김정복 목사를 경찰서 뒷산으로 끌고 가서 무차별 머리에 관통상을 입혔는데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순교하였다. 그때가 1950년 9월 30일로 그의 나이 69세였다.

1951년 1월 23일에 고대작 목사가 부임하여 3월 3일에 김정복 목사 순교 추도예배를 드릴 때 4천여 성도가 애도했다. 1977년 김두영 목사에 의해 김정복 목사의 순교기념비를 중앙예배당 앞에 건립하고 비문으로 ‘쌔별’이란 제목의 시문을 기록했다. 1978년 5월 17일에는 병원당국은 병원입구에 순록탑을 세워 김정복 목사와 함께 병원을 지키다 순직한 11명의 이름을 기념하였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김정복 목사의 유해를 고흥읍 남방 1km 도로변 왼편 산기슭에 그의 순교 묘역을 십자성전교회의 주관으로 단장하였다. 소록도교회는 제86회 총회에 헌의하여 2011년 11월 16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순교자사업부의 결의로 51년 만에 순교자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 김두영 목사 부임과 예배당 건축

1962년 2월 10일에 김두영 목사가 부임하고 6월 3일에 연합당회의 결의로 소록도 일곱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하고 원당국과 예배당 부지를 절충하였다. 1962년 11월 25일 신생리교회 착공을 시작으로 28일 남생리교회와 장안리교회, 30일에 구북리교회가 착공예배를 드렸다. 1963년 8월 14일에 중앙교회가 착공되었고, 12월 24일에는 신성교회, 남성교회, 복성교회, 장성교회가 준공되고 입당하게 되었다.

1964년 1월 3일에 서성교회, 6월 15일에는 동성교회가 준공되었고, 11월 15일에 중앙교회가 완공되어 준공예배를 드림으로 소록도 일곱 교회의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 중에 장성교회는 1986년 4월에, 서성교회는 1990년 7월 1일에 마을이 중앙리로 이주하면서 폐쇄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소록도 내에는 중앙교회, 신성교회, 동성교회, 남성교회, 복성교회 등 5개 교회가 있으며, 직원들 중심으로 모이는 소록교회가 있다.

### 역사적 의미

- 1) 소록도교회의 역사는 한국근대사에서 한센씨병 환자들을 치유하는 병원의 역사와 더불어 진행되었다는 특수성을 가진다. 한센씨병은 구약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질병이 발견되는 즉시 부정의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격리되어 살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대표적인 사회약자들이었다. 비록 국가주도로 형성된 치유공동체이고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신앙생활이지만 이들의 삶과 신앙은 기독교회의 본질적인 측면을 가장 드러내는 경우이다. 앞으로 소록도교회의 역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요구된다.
- 2) 소록도 5개 교회는 분산되어 회집하지만 연합당회를 구성하는 특수한 교회형태를 가진다. 이런 경우는 한국기독교 역사에서 특이한 케이스이다. 또한 하나의 섬 안에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7개 예배당을 건축한 것 역시 한국기독교 역사에 드문 경우이다. 비록 1960년대 초반에 건축된 예배당이지만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고, 또한 그들의 특수한 신앙의 양태가 잘 보존된 곳이기 때문에 한국기독교 역사에서 소록도교회의 유 무형의 기독교적 자산을 잘 정리되고 보존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역사적인 현장에서 함께 살아왔던 원생들이 대다수 고령인 점을 감안한다면 하루 속히 구술과 역사 자료의 정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 3) 소록도교회는 질병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소외된 약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국가의 보호를 받기도 했지만, 시대의 굴곡과 더불어 많은 아픔들을 담고 있다. 일제 강점기의 신사참배 강요와 한국전쟁으로 인한 김정복 목사의 순교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고난을 극복한 이들의 순수한 신앙 정신을 잘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할 우리의 자신임에 틀림없다.



### 사적지 지정 근거

소록도의 5개 교회는 한센씨병을 치료하기 위한 집단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신앙의 역사를 가진 독특한 단면을 보여준다. 외롭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인 한국기독교의 본질적인 정신을 잘 드러내는 귀중한 역사적 사료이다. 소록도교회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영향으로 성결교로 시작했지만, 해방 이후부터는 본 줄곧 본 교단 소속교회를 그 명맥을 유지한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소록도라는 한 섬에서 지교회 예배당을 가지면서 연합당회를 구성하는 독특한 구조에 대해서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시 예배당들이 원형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것 역시 귀중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순교자 김정복 목사의 순교 정신이 서려있는 교회인만큼 하루 속히 사적지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소록도교회에 대한 자료 정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제103회 총회에서 소록도 5개 교회를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와 순교자 김정복 목사를 기리는 ‘한국기독교순교사적지’로 겸하여 지정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 9. 순교자 권중하 전도사 의성지역 시무 6개처 교회

- 1) 중리교회(고관규 목사) / 경북 의성군 춘산면 금성현서로 1055-1
- 2) 효선교회(정권익 목사) / 경북 의성군 춘산면 효선 3길 143
- 3) 현리교회(안해호 목사) / 경북 의성군 가음면 빙계계곡길 16
- 4) 춘산교회(원용석 목사) / 경북 의성군 춘산면 옥정 1길 45
- 5) 금천교회(김현덕 목사) / 경북 의성군 춘산면 금천 2길 30-2
- 6) 산운교회(라영수 목사) / 경북 의성군 금성면 산운길 82

### 1. 순교자 권중하 전도사의 생애, 사역, 순교

어느 순교 세미나에서 한 발표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순교를 대할 때 귀한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오랫동안 장 속에 넣어놓은 채 잊어버리고 있는 것과 같다. 그 보석을 어느 날 꺼내어 다시 닦을 때 그 감추어진 보석은 다시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순교에 대한 신학적 성찰도 이와 같다.”<sup>21)</sup> 정말 권중하 전도사의 경우가 꼭 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분을 역사의 장 속에 넣어 두었다.

권중하 전도사는 1938년 신사참배 반대 이유로 순교자 주기철 목사와 같은 시기에 의성경찰서에 수감되어 고문을 받았다. 주기철 목사는 제2차 검속기간(1938.8~1939.2) 약 7개월 동안 이곳에 수감되었다. 현존하는 후죽동의 구(舊) 의성경찰서가 그의 순교와 직접 연관 있는 유일한 장소이며, 그곳에서 그의 순교신앙이 구체화 되었다는 연구<sup>22)</sup>에 따라 총회역사위원회는 한국기독교순교사적지로 지정하였다.

21) 박성원, “한국교회 순교에 대한 신학적 성찰”, <구름같은 증인들의 빛과 그림자>(창과 현, 2009), 61.  
 22) 박창식, “순교자 주기철 목사와 구 의성경찰서 관계 연구”, <총회역사위원회 제1차연구학술세미나>(2017.5.25.), 48-81을 참조할 것.



그러나 증언에 따르면, 권중하 전도사는 약 1년 가까이 의성경찰서에 수감과 출감을 반복하면서 혹독한 고문을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이내 순교하였다.<sup>23)</sup> 이것만 보더라도 권중하 전도사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부족했으며, 한 국교회가 그를 잊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지금이라도 귀한 보석을 다시 꺼내어 닦고 우리의 신앙고백으로 연결하는 이런 작업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귀한 일이라 사료된다.

전통적으로 교회사에서 ‘순교’를 말할 때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한다.

- 첫째, 신앙에 대한 고백과 복음에 대한 증거자여야 한다.
- 둘째, 그 죽음이 복음 증거와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것이어야 한다.
- 셋째, 그 증거를 대적하는 박해자나 정치적 가해자가 있어야 한다.<sup>24)</sup>

권중하 전도사는 이 세 조건을 만족하는 진정한 순교자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지난 102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2017년 7월 17일에 총회순교자기념사업부 주관으로 순교자등재 감사예배를 드림으로 총회의 공식적인 순교자에 등재되었다.

**첫째, 그분은 죽음으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리임을 증거한 순교자이다.**

그가 직접 남긴 설교 한편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가 성경 가방을 둘러매고 경북지방 곳곳을 누비면서 전했던 그 복음이 진리였음을 자신의 순교를 통해서 증명하는 삶을 살았다. 수없이 많은 설교와 책을 출판한들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슨 능력이 있겠는가?

그분도 인간이고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주기철

23) 윤두환 목사의 증언, 경신노회에서 총회순교자기념사업부장에게 보낸 실종된 순교자 발굴보고서 참조.  
 24) 이상규, “교회사 속의 순교”, <구름같은 증인들의 빛과 그림자>(창과 현, 2009), 191.



목사가 남긴 ‘오종목의 나의 기원’이란 설교 3대지에서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부탁드립니다’에서 자식이요 아버지로서 남긴 애뜻한 내용이 그에겐들 왜 없었겠는가?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전했던 성경의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하나의 계명에 충실하기 위해 직접 목숨까지 걸었다.

### 둘째, 그분은 ‘옳음(正)’과 ‘옳지 않음(邪)’이 분명한 삶을 보여준다.

옳음은 끝까지 추구해야 할 길이지만 옳지 않음은 그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권중하 전도사님의 모습은 증언에 의하면 “그는 전형적인 한국의 선비였다. 깡마른 체구, 긴 얼굴, 큰 눈이 그의 외모의 특징이다”라고 했는데, 주목할 것은 그가 ‘전형적인 한국의 선비’였다는 것이다. 그가 교역의 길에서도 야학을 통해 사람들에게 <명심보감>이나 <천자문>을 가르쳤다는 것을 보면 그는 아마도 젊어서 유학을 깊이 접했던 분으로 여겨진다.<sup>25)</sup>

박형룡 박사, 박윤선 박사 등을 위시하여 당시 한학을 하던 분들이 신앙에 입문한 경우는 성리학이 가졌던 ‘정통과 이단의 이분법’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유교의 성리학을 정학(正學)이라고 하고 그 외의 양명학이나 불교 혹은 서학 등을 샀된 것이라는 의미의 사학(邪學)으로 구분하였다.<sup>26)</sup> 이런 구분을 가지고 신앙에 입문하면 정통과 이단이 분명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통이면 그 것에 어긋나는 것은 어떤 것도 이단이 된다. 그러므로 결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교리적이며 복음주의적인 신념체계’가 확고해 지는 것이다. 권중하 전도사님 역시 그의 삶에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감히 사료된다.

### 셋째, 그분은 경북지방의 최초요 유일한 신사참배로 인한 순교자이다.

한국교회사 일각에서 왜 영남지방의 신사참배 반대는 경남지방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는 의문을 던져왔다. 북한의 이기선 목사, 남한의 한상동 목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직적인 신사참배 반대운동은 왜 경북지방에는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지만 최근에 산 순교자로 인정되는 안동의 이원영 목사, 권수백 장로, 그리고 영주의 박충락 목사 등의 신사참배 반대자에 대한 자료들이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답이 되고 있다.<sup>27)</sup> 하지만 권중하 전도사의 순교로 인해 의성이 영남지방의 신사참배 반대의 핵심지역으로 부각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의성은 문자적인 의성에서 진정한 진리의 의성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유재기 목사를 중심으로 농우회 사건, 주기철 목사의 순교와 연관된 구 의성경찰서, 한국전쟁 때 화목교회의 엄도성 강도사의 출산면에서 순교, 이제 여기다 권중하 전도사의 순교까지 더하면 순교사에서 의성의 위치는 더욱 확고해진다.

### 역사적 의미

권중하 전도사는 신사참배 반대로 인한 대구 경북지방의 유일한 순교자이다. 지금까지 경북지방의 신사참배 반대 운동은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 최근에 자료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그 역사적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권중하 전도사이다. 그는 경북노회의 파송을 받고 의성

25) <효선교회 100년의 숨결>, 109.

26) 장동민, <박형룡의 신학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8, 26.

27) 박창식, “봉경 이원영 목사 생애와 신사참배 반대운동 연구”. <대구교회사학(제3호)>, 대신대학교 부설 기독교역사문화연구소, 2012, 61-86와 김덕순, “신사참배문제가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경안노회를 중심으로”, <칼빈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6>을 참조할 것.

지역 6개 처 교회를 시무하는 중에 본인이 소속된 경북노회가 신사참배에 굴복한 했지만 끝내 신사에 굴복하지 않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최근 구 의성경찰서가 순교자 주기철 목사의 제2차 수난당한 장소임을 밝혀지면서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이 장소는 바로 권중하 전도사가 주기철 목사와 동 시대에 수감되어 고초를 당한 장소이고, 바로 그 일로 인해 순교한 장소이다. 총회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권중하 전도사를 순교자로 인정하고 지난 2017년 7월 17일에 순교자 등재감사예배를 드렸다.

### 사적지 지정 근거

권중하 전도사가 의성지역 6개 처 교회를 시무하던 중에 신사참배 반대로 인해 순교했기 때문에 제103회 총회에서 중리교회, 효선교회, 현리교회, 춘산교회, 금천교회, 산운교회를 한국기독교순교사적지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중리교회는 권중하 전도사가 시무하던 옛 예배당이 원형대로 보존되어 총회는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로 지정한 바가 있다. 이처럼 권중하 전도사가 총회의 순교자로 등재되고, 중리교회 옛 예배당이 사적지로 지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 의성경찰서과 더불어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이에 103회 총회에서 이들 6개 교회를 공히 ‘한국기독교 순교사적지’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한국기독교 역사 및 순교 사적지 및 유물지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한국기독교의 역사, 순교 사적지(이하 '사적지'로 통일한다.) 및 역사적 유물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여 역사사적지 및 유물에 대한 원형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제2조(정의) 본 세칙에서 역사사적지 및 유물이라 함은 유, 무형의 신앙유산으로서 다음의 가치가 인정된 것을 의미하고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역사적 가치
2. 교회사적 가치
3. 문화예술적 가치
4. 기타 자료적 가치

제3조(업무 관장) 사적지 및 유물에 관한 제반 업무는 총회역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통일한다.)가 담당한다.

제4조(공개) 사적지 및 유물로 지정된 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체 혹은 일부를 공개한다. 단, 사적지 및 유물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관리, 보존, 활용에 관한 조사)

총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사적지의 관리, 보존, 활용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단, 위원회는 조사에 관한 취지를 사적 소유자 및 해당 교회 그리고, 소속노회에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목적과 절차) 본 규정 제2조(정의)에 부합하는 신앙의 유산으로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사적지 및 유물로 지정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개인 및 노회가 신청할 경우
  - 1) 지정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노회에서는 사적지 및 유물의 소유자(및 교회)또는 관리권자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교회 또는 소유자(및 교회)의 소속노회를 경유하여 노회 명의로 총회에 신청한다.
  - 2)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 3) 위원회의 결의로 총회에 지정 청원한다.
  - 4) 총회가 지정을 결의한다.
2. 위원회가 직접 신청할 경우
  - 1) 소유자 또는 관리권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위원회가 자체 조사, 심의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할 경우는 소유자(및 교회) 또는 관리권자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7조(통지와 고시)

1. 총회가 지정여부를 결의하면 위원회는 신청자(및 교회)에게 결정을 통지한다.
2. 총회지정 사적지 및 유물은 총회 지정결의 후 총회홈페이지(및 역사위원회 게시판)에 고시한다.

제8조(후속조치)

1. 총회지정 사적지 및 유물은 총회 후 지정식을 통해 효력이 확정된다. 단, 지정식을 하지 못할 때는 위원회에 연기청원을 해야 한다.
  - 1) 지정식은 위원회가 노회 및 교회와 협의하여 형편에 따라 시행한다.
  - 2) 위원회는 지정동판과 지정증서를 교부한다.
    - (1) 지정동판에는 명칭, 지정번호 등을 적시하고 규격(cm)은 총회규격에 맞게 제작한다.
    - (2) 지정증서에는 명칭, 지정번호, 지정일자, 소유자 또는 관리권자 성명 등을 적시하고 총회

장인을 날인한다.

(3) 지정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 ① 역사사적지 : 청원 순서대로,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제( )호
- ② 순교사적지 : 청원 순서대로,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제( )호
- ③ 유 물 : 청원 순서대로, 한국기독교유물 제( )호
- ④ 연관성 지정은 제( )호 아래, 제( )호 - 일련번호

제9조(지정 취소) 지정의 가치가 상실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가 심의하여 총회에 청원하여 보고하면 총회의 결의로 지정을 취소한다.

제10조(일반문화재와 동시 지정) 사적지 및 유물이 국가 혹은 시·도 지정 문화재로 동시 지정된 경우, 사적지 및 유물의 관리, 보존, 활용에 관하여 해당 단체와 협의한다.

제11조(관리) 위원회는 사적지 및 유물에 대해서 해 노회와 소유자(및 교회) 또는 관리권자와 협의하며 관리란 보존과 활용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사적지 및 유물의 1차적 관리 책임은 소유자(및 교회) 또는 관리권자에게 있다. 소속노회, 총회는 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 2) 사적지 및 유물의 상태변경(이동, 손실 등)에 대해서 소유자(및 교회) 또는 관리권자와 소속노회는 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 3) 보존에 영향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있어야 보수 및 변경을 시행할 수 있다.
- 4) 소유자(및 교회) 또는 관리권자는 사적지 및 유물에 대한 기록, 자료수집, 연구 등에 노력하고 이를 위해 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5) 소유자(및 교회) 또는 관리권자와 소속노회, 본 위원회는 사적(유물)의 보존과 활용(공개, 사용, 전시 등)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한다.

제12조(재정) 사적지 및 유물 지정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총회와 소속 노회의 지원금과 개 교회나 독지가의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 부 칙

제1조(개정) 본 세칙은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개정한다.

제2조(정족수) 본 세칙의 개정 정족수는 위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이다.

제3조(시행사항) 본 세칙의 시행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2018. 7. 3. 제정



별표

### 한국기독교 역사 및 순교 사적지 및 유물 지정 세부기준

구분	지정에 대한 세부기준	
	대외적 기준	대내적 기준
1. 역사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한국사회의 변화, 발전 기여</li> <li>② 교육, 의료, 출판, 번역, 국어학, 여성 등 근현대 문화사적 각 분야에서 발전 기여</li> <li>③ 기타 근현대사 각 분야 발전 기여</li> <li>④ 원본이나 초판, 희소성, 독창성</li> <li>⑤ 보존상태의 양호성</li> <li>⑥ 교회사적, 역사적 가치 및 대중적 영향력은 크지 않으나 기독교 전래와 수용, 정착 등과 연관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교회나 노회의 설립과 관련</li> <li>② 교회와 노회의 각 분야(부서, 기관, 중장기적 사역, 회의, 조직 등)의 시작과 관련</li> <li>③ 교회나 노회의 인물과 각 분야가 근현대 역사, 문화, 사회적 변화와 변혁과 관련</li> <li>④ 당회와 노회가 비치해야 할 문건의 초본, 원본</li> <li>⑤ 교회나 노회가 작성(제작)하는 제 문건의 초본, 일정 주기에 작성(제작)된 책자 및 자료(예: 100년사 등)</li> <li>⑥ 교회나 노회의 초기 비품이나 현재는 생산 또는 생산이 중단된 사료</li> <li>⑦ 교회나 노회의 첫 건축이나 증축, 재건축, 신축관련 자료</li> </ul>
2. 교회사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독교 수용사에서 동아시아적 의미 및 영향력과 관련</li> <li>② 기독교의 도입, 정착, 한국적 발전 관련</li> <li>③ 기독교 발전의 주요 사건사적 관련</li> <li>④ 기독교 발전의 주요 인물사적 관련</li> <li>⑤ 기독교 각 교파별 초기 선교사적 관련</li> <li>⑥ 교회 문화사적으로 입증된 가치 관련</li> <li>⑦ 기독교에게 끼친 대중적 영향력 관련</li> <li>⑧ 총회나 공적 기관에서 인정한 순교, 순직 관련</li> <li>⑨ 초기 선교사와의 인적, 활동적 관련</li> <li>⑩ 일반사, 교회사, 언론 게재 등 기록적 의미의 지대성과 관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교회사의 사건과 인물과 관련</li> <li>② 지역의 기독교 도입과 전파와 관련</li> <li>③ 초기 선교사와 관련</li> <li>④ 초기 교회 인물의 가계와 관련</li> <li>⑤ 노회 역사에 평가, 기술 관련</li> <li>⑥ 총회나 공적 기관에 순교, 순직 청원 관련</li> <li>⑦ 교회사나 노회사 기술자료 관련</li> <li>⑧ 총회나 노회, 공인된 기독교단체 포상 관련</li> </ul>
3. 문화예술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교회미술사적 희소성이 평가</li> <li>② 실험성, 예술성, 완성도 평가</li> <li>③ 기독교의 한국적 토착화 평가</li> <li>④ 기타 미술사적 또는 문화사적, 건축사적 관련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현대적인 대량생산, 제조방법이 도입되기 전 시기에 수작업으로 만든 교회물품</li> <li>② 성도들의 집체적 노력이 담긴 교회물품</li> <li>③ 성도나 목회자의 미술적 활동물로서 교인 다수에게 감동을 준 작품</li> </ul>

## 총회역사위원회 최종 보고

### 1. 제102회 총회 수입사항

- 부산노회장 문상무 씨가 현의한 초량교회 기독교 역사사적지 지정 청원의 건과
- 부산노회장 문상무 씨가 현의한 초량교회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 지정의 건과
- 동부산노회장 손삼용 씨가 현의한 초량교회를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로 지정 현의의 건과
- 남부산남노회장 김종희 씨가 현의한 초량교회를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 3호로 지정 현의의 건과
- 남부산남노회장 김종희 씨가 현의한 일제강점기 주기철 목사 수난 사업-의성경찰서 옛건물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지정 현의의 건과
- 경안노회장 최정호 씨가 현의한 송천교회에 대한 총회 차원의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 지정 청원의 건과
- 김제노회장 김창수 씨가 현의한 만경교회 한국 기독교 순교사적지 지정 청원의 건은 **총회역사위원회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2. 102회기 추진사업개요

추진사업명	일 시	추진부서
1) 사적지 지정 감사예배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제3호 지정감사예배 2018년 1월 24일(수) 저녁7시, 초량교회	사적지 지정분과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제4호 지정감사예배 2018년 3월 13일(화) 오전11시, 일제강점기 의성경찰서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제5호 지정감사예배 2018년 3월 13일(화) 오후2시, 중리교회	
	한국기독교순교사적지 제2호 지정감사예배 2018년 3월 29일(목) 오전11시, 만경교회	
2) 사적지 발굴 현장답사	1차) 3월 13일 영덕송천교회	
	2차) 3월 27일 법성교회, 광주양림교회	
	3차) 3월 29일 송지동교회, 구암교회, 전주서문교회	
	4차) 6월 7일 소록도5교회, 고흥읍교회	
3) 연구학술세미나	2018년 5월 24일, 총회회관 5층 예배실	연구분과
4) 정기연구학술 저널집 「장로교 역사와 신앙」발간	제103회 총회시 배부	
5) 사료전시회	제103회 총회기간 중	
		사료분과



## 3. 103회기 사업계획(안)

구분	추진사업계획(안)	해당 예산금액
회의비	전체회의 / 임원회의 / 분과회의	10,000,000
임원회	- 총회역사관 가이드북 재고소진 제작	10,000,000
	- 역사관 운영관리비 (임시직-1명(160만원*12개월=1,920만원) 기타 역사관 비품 및 자료교체 유지보수 비용)	20,000,000
	- 역사유물 인수관련 제경비	10,000,000
자료분과	- 사료분류 및 관리번호 부여작업 (2018. 10.예정, 도서관학 전공자로 2개월 작업소요 예정)	5,000,000
	- 사료기증 협조 신문공고 및 공문발송 (매년 1회, 1월중, 정기)	2,000,000
	- 총회회의록 영인본 제작 및 디지털 전자화 (PDF) 추진	10,000,000
	- 기획전시회 준비	5,000,000
사적지 지정분과	- 한국기독교 역사 및 순교사적지에 대한 지정 감사 예배 (4회 * 300만원, 기타100만원) 영덕송천교회, 소록도5교회, 순교자 권중하 전도사 사적지 6개처 교회, 군산구암교회, 군산개복교회, 삼도교회, 고흥읍교회, 광주양림교회, 전주서문교회, 영광법성교회 (총 10곳)	13,000,000
	- 사적지 발굴 현장답사비	3,000,000
연구분과	- 교단 역사위원회 연합학술세미나 (일정 미정) (3.1운동100주년관련 통합, 고신, 감리 등과 기독교 역사적 의미에 대한 관련자료 발표)	10,000,000
	- 정기학술세미나 (5월)	5,000,000
	- 사적지발굴에 따른 지정조사 연구보고서 작성 및 연구비(기독교 역사적 사건 및 인물, 사적지, 유물 등에 대한 기초연구 조사)	7,000,000
	- 정기간행물 제2호 역사저널집 발간	10,000,000
	- 홈페이지 구축	5,000,000
김제만경교회 순교역사기념관 건립지원		100,000,000
합 계		225,000,000

## 청 원 서

수신 : 총회장  
 참조 : 서기 및 재정부장  
 제목 : 제103회기 위원회 사업 청원

### 1. 예산 청원

총회역사위원회의 제103회기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을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금 액	비 고
회 의 비	10,000,000	- 전체회의(2회): 500만원, -임원회 및 분과회의(10회): 500만
사 업 비	95,000,000	- 가이드북 재고소진 추가제작: 1천만원 (4천부) - 역사유물 인수 제경비: 1천만원 - 사료분류 및 관리번호 부여작업: 5백만원 - 사료기증 협조 신문공고 및 문자, 공문발송: 2백만원 - 총회회의록 영인본 제작 및 디지털전자화(PDF)작업: 1천만원 - 기획전시전 준비: 5백만원 - 사적지 지정감사예배: 1천3백만원 - 사적지 발굴 현장조사 답사비: 3백만원 - 연구학술세미나(3.1운동100주년교단연합, 정기): 1천5백만원 - 사적지 발굴 지정조사 연구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7백만원 - 정기간행물 역사저널집 발간: 1천만원 - 홈페이지지구축: 5백만원
총회역사관 운영관리비	20,000,000	- 운영관리비: 2천만원 임시직1명(160만원*12개월=1,920만원), 시설유지 자료교체 보수비용
김제만경 교회순교 역사기념관 건립지원	100,000,000	한국기독교 순교역사관 건립지원 사업비 총 2억원 중 1억원 총회지원, 나머지 1억원은 해 노회와 지역교회, 전국교회 후원요청
합 계	225,000,000	

### 2. 한국기독교 역사 및 순교사적지 지정청원 건

한국기독교 역사사적지 및 순교사적지를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독교 역사사적지	한국기독교 순교사적지
제 6호: 전주서문교회 제 7호: 군산구암교회 제 8호: 군산개복교회 제 9호: 광주양림교회 제10호: 영덕송천교회 제11호: 고흥읍교회 제12호: 소록도5교회 제13호: 삼도교회	제3호: 소록도 5교회(순교자 김정복 목사) (중앙, 신성, 동성, 남성, 북성교회) 제4호: 순교자 권중하 전도사 사역지 6개처 교회 (중리, 효선, 현리, 춘산, 금천, 산운교회) 제5호: 법성교회



3. 2019년 3.1운동100주년 기념 타 교단(역사위원회)과 협의를 통한 연합 학술포럼 개최청원
4. 전국노회, 교회, 총회산하 기관에서 발행하는 역사간행물 총회역사위원회로 2부씩 제출 계속 청원 건 (교회사, 노회사, 기관사, 노회록 사본 등)

2018년 9월

총 회 역 사 위 원 회  
위원장 김 정 훈  
서 기 박 창 식